서울시의원불자회 "佛法 실천, 시민에 봉사"

5월 19일, 제11대 불자회 창립법회
진우 스님 "자리이타 하라" 당부
지현 스님 계사로 5계품 수계식도
불자의원들 "부처님 정법 외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불자회는 5월 1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1대 불자회 창립 및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서울시민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불자의원들이 오계를 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서울시민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불자회(회장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는 5월 1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1대 불자회 창립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남창진 서울시의회 불자회장, 최기찬, 임만균, 황철규 시의원 등 사부대중이 대거 동참했다.

이날 남창진 제11대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원융화합과 상생의 대승적 정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남창진 회장은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상생과 화합의 정치 구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상생 자비 중도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시민 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오늘 창립법회를 계기로 우리 의원불자회는 시민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명상할 것을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욕심과 번뇌를 내려놓으면 선광처럼 지혜가 나타난다"고 강조하며 "자리아타 마음으로 서울시민을 위해 일한다면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창립법회에 이어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계사로 나서 5계품 수계식이 봉행됐다.

지현 스님은 "부처님 오계법은 남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조하며 닦는 불자의 생활신조가 되는 것"이라며 "높은 탑 위에서 망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조망해 살피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청정하면 몸이 안락하고 나아가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라며 "부처님 계를 받음으로써 모든 허물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천년동안 어두웠던 방에 등불을 밝힘과 같다"고 말했다.

연비 후 지현 스님은 불자의원 한 명 한 명에게 각각 계첩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황철규 의원은 불자의원들을 대표해 낭독한 발원문에서 "오늘 수계한 공덕으로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배워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여야를 초월해 올바른 시정을 행하고 천만 서울특별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면서 "각자의 역량이 서울시와 우리 이웃, 모든 생명을 위한 것임을 알아 끊임없는 성찰과 정진으로 수계 공덕을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어 모두의 보리심을 일으키고 부처님 정법을 외호해 이 땅 위에 불국정토를 세우는 대승보살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11대 서울시의회 의원불자회는 우봉 스님을 지도법사로 30명이 활동하고 있다. 평소 전통사찰 규제개혁과 예산 편성 등에서 활약해 온 것을 계기로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 앞서 서울시의회 불자회 준비위원들은 지난 3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창립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진우 스님은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인 불교 정신을 정치에 잘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종단 원로·신도들 '천년을 세우다' 동참

대종사 스님들 잇달아 기금 쾌척
대각회·태안사, 불사 기금 전달
조계사 신도들 바자회 수익 기부



종단 원로인 대종사 스님들부터 불교단체, 사찰, 일반 신도까지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을 잇달아 쾌척하고 있다.

조계종 명예 원로인 정련 대종사는 5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및 승려복지기금으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련 대종사를 대신해 부산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이 참석했다.<사진>

기금 전달 직후 지일 스님은 "정련 대종사께서 '총무원장 스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종단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큰 원력을 세운 만큼 불사가 원만 성취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하셨다"면서 "앞으로도 종단 불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종단 원로 스님들의 불사 기금 전달도 이어졌다. 청우 대종사(강릉 등명낙가사)와 혜성 대종사(부산 금강선원), 중하 대종사(공주 신원사), 법성 대종사(부산 인지사)는 5월 15일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을 전달했다. 원산 대종사(양산 통도사)는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기금을 전하며 종단 불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불교단체와 사찰들의 불사 동참도 이어졌다. 대각회(이사장 보광, 조계종 호계원장)는 5월 19일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2000만원, 승려복지기금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법안정사 주지 법수, 대각사 주지 종원, 대성사 주지 법안, 정토사 주지 법원 스님과 신도회 임원진이 함께 했다.

이날 곡성 태안사(주지 각초)도 마애부처님 입불 불사와 아미타요양병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열악한 환경에도 종단 불사와 승려복지 발전을 위해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계사 신도들도 바자회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 기금으로 기부했다. 조계사 신도회는 5월 15일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8290만 6753원을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한마음선원, '대행 선사 11주기 다례재' 봉행

5월 20일 안양본원…1천여 대중
'마음 등불' 대행 선사 향훈 되새겨
혜수 스님 "큰스님 제자로 정진"


5월 20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린 대행선사 열반11주기 추모다례재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이 대행 선사 영전에 차를 올리고 있다.

생활 속 마음수행의 가르침을 전한 근현대 대중포교 선지식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열반 11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 앞서 추모다례재에 모인 전국 불자들은 선사의 향훈과 가르침을 되새기고 전법포교의 원력으로 승화시키는 자리를 가졌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5월 20일 안양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번 다례재는 국내외 25개 지원 신도 및 주요 임원을 포함한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례재는 식전 사부대중 의식으로 주지 혜솔 스님을 법주로 대중들은 천수경을 봉독하고 축원, 뜻으로 푼 반야심경 봉독을 진행했다.

이어진 다례재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헌다와 헌향, 헌화가 이어졌다. 이밖에 본원과 각 지원 신도회장, 임원들도 각 령전에 헌화하며 대행 선사를 향한 추모와 가르침을 실천해갈 것을 다짐했다. 또 옥천 감로사 주지 길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헌화가 이어졌다.

다례재에서는 열반 11주기 추모특집 영상을 통해 안양본원이 세워지게 된 역사가 소개됐으며 그 불사가 이뤄지게 된 근간인 대중포교 원력이 전해졌다.

영상에서 대행 선사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 부처님께서 둘 아닌 일대사를 보신 것에는 내 생명 아닌게 없고, 내 도량 아닌게 없다. 그런 경지에서 어찌 나툼이 없겠는가"라며 "우리가 공부해서 길이 없는 길을 걸으면 허공이 다 내 길이 아니겠나.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라고 마음수행의 필요성을 설했다.

대행 선사는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좀 너그럽게 살라. 몸과 가정이 둥글게 어질게, 착하게 지혜롭게 문리가 터져야 한다. 그래야 나도 건지고 상대방도 건질 수 있다"고 가르침을 전했다.

영상에서는 이러한 마음수행에 대한 터전으로 마련된 한마음선원의 불사에 참여한 수많은 대중들의 옛 추억과 새로운 희망을 전했다. 추모 분위기와 함께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대중들이 그 가르침을 이어 연희단을 준비하면서 전법의 환희로 승화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다례재 후에는 본원 선법합창단이 선법가 '자유의 한마음'과 '서천의 푸른 나무'를 부르며 대행 스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선사께서 50년 전 중생 제도의 터전으로 이 도량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상원사에서 수많은 대중을 보듬어 안고 안양에 오셔서 많은 신도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 그 당시 함께 시작하신 신도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지만, 후손들이 함께 거들며 한마음 대중을 이루고 있다"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백년 수천년 앞으로도 인연을 이어 만날 수 있도록 세세생생 부처님 제자로, 큰스님 제자로 함께 정진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다례재에 앞서 대행 선사와 인연이 깊은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성우 대종사가 안양본원을 찾았으며,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가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담은 선시를 지어 추모재에 참석한 대중들에게 공개했다. 노덕현 기자


"오늘은 조계사 부처님 목욕하는 날" 1년에 하루, 부처님도 목욕을 한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그동안 어깨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날.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도 사부대중의 정성어린 손길에 더욱 장엄한 금빛을 되찾는다. 서울 조계사 사부대중이 높이 5m에 달하는 대웅전 본존불 소제관욕을 위해 작은 크레인까지 동원해 먼지를 닦아내고 있다. 윤호섭 기자 · 사진=조계사

3대종교·상담계 "전문상담사법 제정을"

조계종 포교원 등 5월 15일 제정 촉구 성명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3대 종교계가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주교, 이상억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 대표는 5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범종교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각 종교를 대표해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과 민범식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이상억 목사가 참여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는 각자가 지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 바탕을 두고 사회과학적 상담이론과 실천을 접목하여 전문 상담사를 양성해 왔다.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국가에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일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상담에 있어 종교적 요소와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이 제정된다면 지금까지 각 종교가 전문성을 지니고 수행해온 종교상담 영역의 활동을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 건강 돌봄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성과 전문성을 표방하고 종교가 가지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온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하는 상담서비스지원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한국 종교계는 관련 법률 제정과 관련해 기독교의 목회 상담, 불교의 명상 상담, 천주교의 영성 상담 등 종교 상담의 전문영역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과 학문적 토대를 갖춘 전문 상담사를 교육하고 배출할 수 있는 법률의 입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범상담계도 법안 제정 촉구에 동참했다. 한국불교상담학회, 불교명상담단체협의회 등 종교 및 상담학계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민 마음건강 및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한 상담 관련법 제정 절차에 조속히 임하여 대국민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라"면서 무자격자와 비전문가들의 상담 수행을 금하는 법 제정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대학생포교 '한마음'…동국대에 기금 쾌척

돈명·종열 스님, 김도현 병원장 각 5000만원 전달



대학생 청년불자 육성에 동참하기 위해 스님과 재가자가 나섰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동국대 이사장)는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과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회주 종열 스님, 김도현 연세베스트요양병원장이 5월 19일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사진>

이사장 돈관 스님은 "소중한 정재로 대학생 전법을 통해 청년불자 양성의 소중한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청년불자 양성은 미래 한국불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기부자들께서 솔선수범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정재를 보시해주신 뜻을 잘 살리겠다"고 말했다.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의 교육에 대한 큰 관심을 보고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학교가 융성해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엄사 회주 종열 스님은 "학교를 방문해 보니 동국대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 생각된다"며 "교육불사를 위해 돕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 기부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되어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변에 권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병원장도 "스님들 말씀 잘 새기셔서, 그 뜻이 잘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해외지도자들 "연등회, 세계인의 축제"

5월 20일, 종단협 초청 6개국 14명 스님 진우 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6개국 불교지도자들의 예방을 받고 "연등회를 통한 불교국가간의 교류로 불교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스리랑카,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서 방문한 13명의 스님들을 맞았다.<사진>

진우 스님은 "코로나19 이후 해외불교계 스님들이 다시 함께 연등회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면서 "연등회를 통해 아시아권 불교국가가 교류하고 함께 연대하면서 불교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종정 예경실장 담마라타나 스님은 "연등회는 이제 한국만의 축제가 아닌 전세계의 축제"라면서 "불자로서 연등회에 참석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스리랑카의 오래된 불교 인연을 언급했다. 스님은 "2004년 쓰나미 당시 한국 불자들의 후원은 재난 극복의 큰 힘이 됐고, 최근 국가부도 상황에서 건네준 십시일반 의료품들은 희망이 됐다"면서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담여 스님은 연등회로 세계에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했으며 베트남불교중앙협회 사무국장 팃탄휴 스님도 "연등회는 자비와 지혜가 꽃피는 축제"라며 "모두가 행복한 부처님오신날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임은호 기자